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응집성 인식 양상 연구*

이보라미 · 수파편 분룽**

Abstract

Lee, Bo La Mi & Supapom boonrung. 2012. 2. 28. **A study on the cognition of coherence in Korean texts for Thai Korean language learners.** *Bilingual Research* 48, 181-205.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how Thai Korean language learners in the advanced level perceive coherence in Korean texts, by using an introspective method, one of qualitative methods. For the levels of the learner's mother language could influence their recognition on coherence in the test, the same text was translated into the mother language and presented to them, to minimize the impacts of the variables, and at the same time, the test on the recognition on coherence in Thai texts was given. At first,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the learners' recognizing coherence were analyzed, and then they were compared not only between groups, but also in their own groups. Lastly, I interviewed the learners based on what they wrote themselves for recollection, chosen as introspective research method. The first project found that Thai Korean language learners were having difficulties recognizing coherence, using omitted information and more sensitive to arrangement of orders of sentences. The learners were also dependent on grammatical cohesive device, such as conjunctive adverbs and vocabulary. The second project found that the learners were less sensitive to whether omitted information showed up or information was overly omitted even though they were able to find the clues of the

* 이 논문은 2011년 11월 5일에 개최한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주제 발표 분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많은 조언을 해주신 토론자분과 심사평으로 논문 보완에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이보라미: 제1저자 · 수파편분룽: 제2저자

information in their mother language. When recognizing coherence in the texts, they thought conveying general meanings of the sentences was the most important. Lastly, it was found that the learners accepted coherence more generously when the meanings of the sentences were well conveyed even in the case where the orders of the sentences were not properly arranged.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Chulalongkom University**)

【Key words】 텍스트 응집성 인식(cognition of coherence in Korean texts), 응집성(coherence), 응결성(cohesion), 응결 장치(cohesion device),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Thai Korean language learners), 자기 보고(self-report), 회상(recall)

1. 서론

텍스트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완결성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의 축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일컬어 응집성이라 하는데, 응집성은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훌륭한 독자는 텍스트 표층의 여러 가지 응결 장치를 활용하여 그 내부의 응집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응집성은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교수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글에는 응집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능력은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요구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텍스트의 응집성을 인식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하여, 태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텍스트의 응집성 인식 양상과 응결 장치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텍스트의 응집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인식 양상은 어떠한가?

- (2)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응집성 인식 양상은 모국어인 태국어 텍스트의 응집성 인식 양상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태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고, 내성적 연구 방법인 자기 보고(self-report)와 회상(recall)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어 텍스트의 응집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특히 응결 장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질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응집성, 응결성, 응결 장치

2.1. 응집성(coherence), 응결성(cohesion)의 개념¹⁾

본 절에서는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응집성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텍스트 응집성과 응결성 연구의 기초를 이루는 학자로 Halliday & Hasan(1976)과 Beaugrande & Dressler(1981)를 들 수 있다. Halliday & Hasan(1976)은 응결성과 응집성을 구분하기 보다는 응결성(cohesion)에 응집성(coherence)의 개념을 포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 1) cohesion과 coherence의 번역 용어는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영근(1999)의 용어를 따라 cohesion을 ‘응결성’, coherence는 ‘응집성’으로 번역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표지로 단어와 문장, 문장과 문장 등을 결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cohesion device는 ‘응결 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표 1> 연구자별 cohesion과 coherence의 번역 용어(김은희 2007:16 수정·보완)

연구자	cohesion	coherence
고영근(1999), 이성만(1994), 안경화(2001), 박나리(2009)	응결성	응집성
김정연(1999)	결합성	일관성
김성환(1999)	결속성	일관성
김재봉(1999), 조영돈(2002), 김광희(2004)	결속구조	결속성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요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의 해석에 의 존재야 한다고 보고 이때 한 성분이 다른 성분을 전제로 할 때 생성되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Beaugrande & Dressler(1981)²⁾을 비롯한 논의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응집성과 응결성의 개념을 구분한다. Brinker(1992)는 텍스트의 응결성(cohesion)은 텍스트 표층의 요소들이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문법적인 장치를 바탕으로 한다고 본 반면, 텍스트 응집성(cohesion)은 문법적 응집성과 주제적 응집성으로 나누어 재수용의 개념, 주제와 주제 전개 구조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텍스트 응집성과 응결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논의되었다.³⁾ 대표적인 연구인 고영근(2000:5)에서는 ‘응결성은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들어 주는 형식적인 장치(주로 언어적인 장치)를 뜻하고, 응집성이란 의미의 그물망 곧 주제의 일관성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 두 개념을 구분한다. 그리고 응집성은 응결 장치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이 ‘양자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도 응집성과 응결성은 텍스트 요소들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자는 텍스트 내부의 결속, 후자는 텍스트 표층의 결

2) Beaugrande & Dressler(1981)는 텍스트성의 일곱 가지 기준으로 응결성(cohesion), 응집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정보성(informativity),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sexuality)을 제시했고, 이 가운데에서 텍스트 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로 응집성, 응결성을 꼽았다.

3) 응집성과 응결성에 관한 국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내용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텍스트 언어학적 관점에서 응집성과 응결성의 개념 자체를 논의하거나 문학 작품, 신문 기사 등의 실제 텍스트에서 그것을 고찰하는 연구들이다(고영근 1999, 고영근 2000, 고성환 2003, 김광희 2004, 양명희·안경화 2003, 이재원 2001a, 이재원 2000b, 이재원 2008, 이종철 2003). 두 번째는 언어 교육적 관점에서 텍스트의 응집성과 응결성을 분석하여 교육적 적용을 시도하는 연구들이다(김성환 1999, 김은희 2007, 김지영 2009, 노미연 2011, 박진용 2003, 안경화 2001).

속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나 응집성은 텍스트 내부의 의미 관계가 가지는 결속, 일관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김은희(2007:16)의 지적처럼 표층적 문법 기제와 같이 가시화되지 않으므로 막연한 부분이 있고 객관적 측정이 어렵다. 그래서 응집성을 실제 텍스트를 통해 분석한 사례는 드물다.

하지만 본 연구는 텍스트 표층의 구체적인 표지인 응결 장치를 통해 텍스트의 응결성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텍스트 내부의 결속 관계인 응집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응집성이 텍스트 내부의 의미적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 결속 강도는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⁴⁾ 텍스트를 의사소통의 의미 단위라 볼 때, 생산자와 수용자가 형성하는 텍스트 외적인 요인(스키마 등)으로 인해 텍스트의 응집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응결 장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응집성을 인식하는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2.2. 응결 장치(cohesion device)의 유형

응결 장치의 분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⁵⁾, 그 중 Halliday &

4) 페토프(Petofi, 1983)는 ‘응집성이란 텍스트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독자가 텍스트에 부과하는 속성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응집성을 텍스트와 독자 배경 지식 간의 함수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박정준 1994:22-24).

5) Gutwinski(1976)는 결속을 ‘문법적 결속’과 ‘어휘적 결속’으로 나눈 뒤 문법적 응결 장치로 ‘대명사, 한정사, 대용어, 부사, 연결어’ 등을 들었으며, Cha(1985)에서는 ‘어휘 문법적 결속과 의미론적 결속, 기호맥락적 결속’을 들었으며, Beaugrade & Dressler(1981)에서는 ‘반복, 병행, 환언, 대용, 생략, 시제/상, 접속’ 등을 들었다(신명선 2009:195). 고영근(1999:141)에서는 응결성 장치를 크게 둘로 나누어 하나는 자소·음운·형태·통사적인 특징에 의하여 텍스트를 형성하는 기제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기능상의 절차에 따라 한 텍스트를 묶는 기제라고 하였다.

Hasan(1976)의 ‘지시, 대용, 생략, 접속, 어휘 결속’ 등의 다섯 가지 구분이 일반적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첫 번째 ‘지시’는 ‘다른 무엇인가를 참고하도록 하는 관계’로 문법적인 관계인 대용과 달리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속한 품사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의미론적 자질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

두 번째로 ‘대용’은 단어나 구와 같은 언어 항목들 사이의 관계로 문법과 어휘 또는 언어의 형식 측면에서 나타나는 연결 관계이다. 주로 특정 언어 항목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 사용되는데, ‘명사적 대용, 동사적 대용, 절의 대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 번째 ‘생략’은 단어나 문자의 일부를 빠뜨리는 것으로, Halliday & Hasan(1976)에서는 ‘무표지에 의한 대용(substitution by zero)’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생략’이 ‘대용’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텍스트 내의 어떤 것이 화자나 작가에 의해 생략되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독자의 배경 지식 및 어휘 지식 등에 의하여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접속’은 이어지는 문장이나 절이 앞, 뒤의 절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보여주는 관계이다. 한국어에서는 접속 부사, 어휘적 접속 표현, ‘도, 만, 조차, 등’의 보조사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어휘적 응집은 ‘어휘적 선택에 의하여 얻어지는 응집적인 효과’로 문법적·의미론적인 연결 관계가 아니라 사용된 어휘들을 바탕으로 한 연결 관계이다. Halliday & Hasan(1976)은 어휘적 응집을 되풀이(reiteration)와 연어(collocation)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되풀이(reiteration)’는 앞서 사용된 어휘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해당 어휘의 동의어(synonymy) 및 하의어(hyponymy), 환유(metonymy), 반의어(antonymy) 관계의 어휘들을 통하여 연결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고, 연어 관계는 ‘정기적으로 함께 등장하는 어휘들 간의 연합으로 얻어지는 응집성’이라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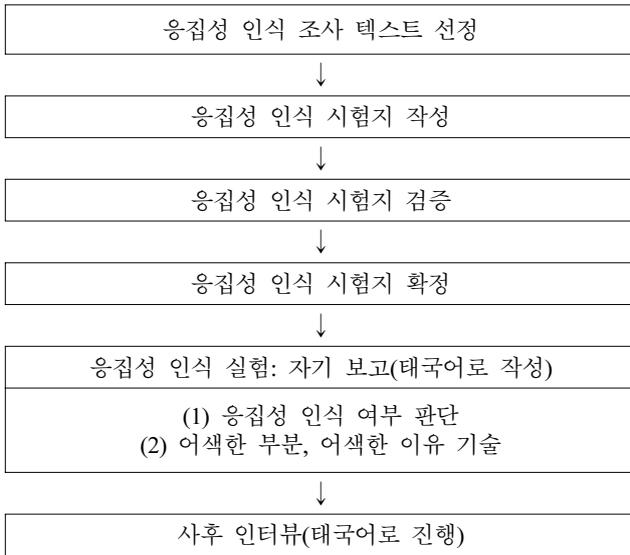
응집성은 응결 장치와 달리 텍스트 표층에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양상을 고찰하는 연구 방법 또한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⁶⁾ 특히 응집성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텍스트 내부의 의미적 연결망에 대한 인지적·인식적 차원의 처리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들이 모국어 텍스트에서 응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어 텍스트에서도 응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모국어로 자신들의 인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적 연구 방법으로 ‘자기 보고(self-reporting)’와 ‘회상(recall)’을 선택하여 <표 2>와 같은 연구 절차를 수립하였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응집성은 텍스트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텍스트 내부의 의미적 연결 관계의 강도를 달리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응결 장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응집성을 이해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응집성이기 때문에 응집성이 부재한 텍스트를 제시하는 것은 연구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내부의 의미적 연결 관계가 응결 장치 등으로 약화되거나 강화된 것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의 응집성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6)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방법도 물론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텍스트 응집성 인식에 관한 연구 사례가 부족한 실정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수용 언어 측면을 살펴 보기에는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표 2> 연구 절차



모국어의 응집성 인식에 대한 언어 능력이 한국어 텍스트 응집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항을 고려하여, 10명의 참여자를 2집단으로 나누었다. 위 절차에 따라 수집된 시험지를 수합하여 집단별, 텍스트별로 응집성 판단 여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성적 연구 방법⁷⁾으로 회상을 선택하여 학습자들이 직접 쓴 내용을 보면서 연구자와 모국어인 태국어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7) 내성적 연구 방법은 인지 심리학에서부터 출발했는데, ‘내성’은 ‘자신의 생각, 감정, 동기, 추론 과정과 정신적 상태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Nunan 2009:164)’을 의미한다. Nunan(2009)에서는 내성적 연구 방법으로 ‘사고 구술’, ‘일지 연구’, ‘회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채택한 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회상하는 방법이다.

3.2. 연구 참여자

모국어인 태국어의 언어 능력이 텍스트 응집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텍스트를 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고 태국어로 응집성 인식 판단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표 3> 연구 참여자 구분

집단	한국어 학습자	제시 자료
A	○	한국어
B	○	태국어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총 10명으로 한국 대학원에 유학 온 20대 태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이다. 본 실험에서는 동일한 텍스트를 한국어와 모국어인 태국어로 보았을 때 그 응집성을 이해하는 양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이 때 집단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기간, 학력 등 교육 환경이 비슷한 학습자들로 집단을 구성하였고, A집단에는 한국어로 된 지시문을 제시하고, B집단에는 동일한 텍스트를 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다.⁸⁾

8) 번역으로 인한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번역된 텍스트를 여러 차례 검증했다. 먼저 태국인 연구자가 1차 번역을 한 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태국에서 한국어 선생님이로 활동한 2인으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1차 번역을 담당할 태국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두 명의 감수자는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개방형 대사전 기초 사전 분과(다국어 사전팀) 편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3.3. 자료 수집 도구

본 연구는 TOPIK 10회~22회 중급 지시문을 중심으로 응집성 인식 조사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TOPIK을 선정한 까닭은 어휘나 문법 항목 등의 난이도가 조정되어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가 비록 한국어 고급 학습자지만 어휘나 문법 항목 등의 난이도로 인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장애를 겪을 경우 텍스트 내부의 의미적 연결 관계인 응집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시험지에 응집성이라는 메타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의미적 연결 관계를 묻는 것으로 텍스트가 어색한지 판단하고 표시하게 하였다.

응집성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기 위해 TOPIK에서 순서 배열하기, 어색한 문장 찾기, 중심 내용 찾기 등의 문제(총 30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문항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태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 4명에게 문항 용이도(정답률)⁹⁾¹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30개의 문항에서 14개의 지시문이 쉬운 문항으로

9) 문항 용이도는 정답을 맞힌 비율로 평가 문항의 어려운 정도를 객관적인 지수에 의해 검증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강승혜(2006:66)에 제시된 문항 용이도 계산법을 $\{R-(W/n-1)\}/N$ (R =정답자 수, W =오답자 수, N =전체 수험자 수, n =답지 수) 적용하여 난이도를 결정하였다. 이때 문항 용이도가 0.25 이하이면 어려운 문항이고, 0.25에서 0.75 사이이면 중간 수준 문항으로 본다. 그리고 0.75 이상이면 정답자 수가 많은 쉬운 문항이라 판별한다.

10) 문항 용이도는 텍스트 응집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다. 평가 항목이 무엇이나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TOPIK의 문항 그대로 문항 용이도를 검증한 까닭은 문제 유형과 텍스트 응집성을 파악하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는 문항은 의미적 연결 관계가 드러나도록 문장의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텍스트의 응집성을 이해하고 응결 장치를 활용해야만 풀 수 있다. 그리고 텍스트 수용자가 각 문장을 적합하게 연결시켜 그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판별되었고, 중간 수준 문항이 14개, 어려운 문항이 2개로 나왔다. 이 중 어려운 문항과 중간 수준 문항에서 10문항을 선정하고, 쉬운 문항에서 10문항을 선정하여 응집성 인식에 관한 최종 문제지를 <표 4>와 같이 확정하였다.

<표 4> 도구로 선정된 문항 정보

문항	문항 유형	문항	문항 유형
1	다른 말로 바꾸기	11	중심 내용 고르기
2	순서 배열하기	12	생략하기
3	필요 없는 문장 고르기	13	앞에 있었을 내용 고르기
4	순서 배열하기	14	생략하기
5	순서 배열하기	15	순서 배열하기
6	생략하기	16	중심 내용 고르기
7	필요 없는 문장 고르기	17	앞에 있었을 내용 고르기
8	순서 배열하기	18	순서 배열하기
9	생략하기	19	생략하기
10	순서 배열하기	20	생략하기

다음의 <자료 1>은 TOPIK 읽기 문항에서 알맞은 순서 배열하기 지문으로 나온 것으로, 문장 간의 의미적 연결 관계가 어색해 응집성이 약화된 텍스트다. 본 연구에서는 A집단에 이러한 텍스트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에게 어색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한 후, 그 까닭을 태국어로 적게 하였다. 그리고 <자료 1-2>처럼 동일 내용을 태국어로 번역하여 B집단에 제시하였다.

<자료 1-1> 한국어로 된 4번 텍스트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 많은 놀부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형인 놀부는 욕심이 많고 동생인 흥부는 마음이 착했습니다. 그래서 흥부 가족을 모두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옛날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자료 1-2> 태국어로 된 4번 텍스트1)

ในอดีตตอนที่ชาวเขาชาวไร่ของเกาหลีปลูกถั่วจะใส่ถั่วลงไปสามเมล็ดในรูหนึ่งรู ถั่วสามเมล็ดนี้ก็คือชีวิตที่กลมกลืนกับธรรมชาติ เพราะเชื่อว่ามนุษย์และสัตว์ต้องกินและอยู่ด้วยกัน เมล็ดหนึ่ง คือ เพื่อสัตว์บนท้องฟ้า อีกเมล็ดหนึ่ง คือ เพื่อสัตว์ในดิน และเมล็ดสุดท้าย คือ เพื่อมนุษย์

3.4. 자료 수집 방법

3.4.1. 자기 보고(self-reporting) 자료 수집 방법

자기 보고 결과는 시험지를 통해 문어로 수집하였고, 응집성 인식 조사 시험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에는 텍스트가 제시된다. 이 텍스트는 문장의 순서가 어색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어색한 텍스트가 주를 이루며(15개), 비교·대조를 하기 위해 응집성이 잘 드러난 어색하지 않는 텍스트(5개)도 함께 제시하였다¹²⁾.

두 번째로 지시문의 어색한 여부를 판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글이 어색하다고 느끼면 X, 글이 어색하지 않다고 느끼면 O 부분에 표시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O/X 결과에 대해 자기 보고(self-reporting)를 태국어로 작성하게 하여 텍스트가 어색하다고 느꼈다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였는지를 적게 하였다.

-
- 11) 태국어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태국어는 타이어족(Thai language)에 속하며 교착어인 한국어와 달리 고립어의 특징을 가진다. 태국어의 문장 구조는 ‘주어+동사+목적어’이나 한국어는 ‘주어+목적어+동사’이다. 그리고 태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선어말 어미나 관형형 어미가 없어 어형의 변화가 불가능하다.
 - 12) 텍스트 응집성에 관한 판단에는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OPIK에서 어색하지 않은 지시문으로 출제된 텍스트의 응집성에 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 최종 확정 문항 중 ‘1번, 3번, 7번, 11번, 16번’은 어색하지 않은 텍스트로 응집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자기 보고를 태국어로 진행하여 연구 참여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려고 하였다. 한국어 고급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데에는 모국어인 태국어가 더 편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태국어로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4.2. 사후 인터뷰(회상) 자료 수집 방법

Nunan(2009:176)에서는 회상 자료를 ‘조사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시간이 얼마간 지난 다음에 수집’되는 한계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회상 자료의 수집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그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자기 보고’ 자료 수집 후 24시간 이내에 ‘회상’을 위한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때 Nunan(2009:177)에서 경고한 것처럼 ‘피험자를 유도하려는 함정’에 빠질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를 유도하려는 함정’을 피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터뷰 방법을 상세화하였다.

첫 번째로 인터뷰를 상세화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자기 보고’ 자료를 분석해 그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1차 분석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응집성을 이해하는 데 접속 부사나 어휘와 같은 응결 장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생략’은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종의 가설로 ‘회상’ 자료를 분석할 때 연구자들이 주의를 집중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한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차적인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만 주목해서는 또 다른 주요한 현상을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사후 인터뷰 상세화의 두 번째 방법으로 질문의 종류를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하였고, 인터뷰 질문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질문의 범위를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

였다. 즉, 어색하다고 판단한 참여자에게는 ‘왜’ 어색하다고 생각했는지를 다시 묻고, ‘어떤 부분’이 그러한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물었다. 그리고 문장 간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문장 내의 어휘 및 접속 부사를 묻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발화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질문 순서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발화하도록 하였다. 사후 인터뷰도 자기 보고 연구와 마찬가지로 모두 태국어로 진행하여 연구 참여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줄이고자 하였다.

4.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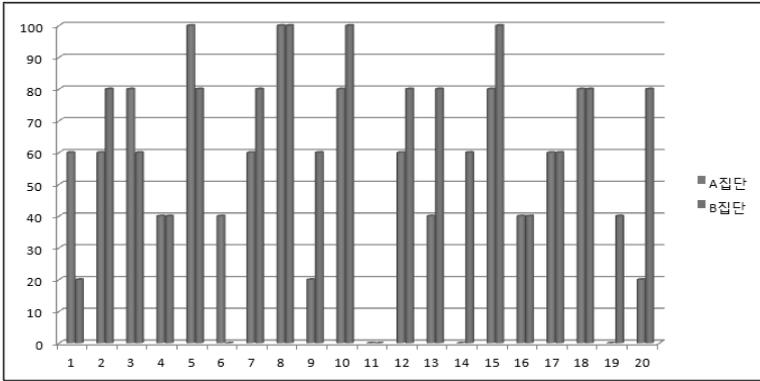
4.1. 자기 보고(self-reporting) 분석 결과

자료 수집 도구로 제시한 총 20개의 텍스트에서 어색한 지시문은 15개, 어색하지 않은 지시문은 5개였다. 그러나 실험에 참여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와 똑같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 어색한 텍스트를 어색하지 않다고 보거나, 혹은 응집성이 잘 드러난 텍스트를 그 반대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림 1>은 한국어 텍스트를 본 A집단과 태국어 텍스트를 본 B집단에서 각각 어색하다고 표시한 비율을 나타낸 도표이다. 막대그래프의 높이가 같은 4번, 8번, 11번, 16번, 17번, 18번은 한국어로 보았을 때와 태국어로 보았을 때 텍스트의 응집성을 판단한 양상이 동일한 것을 나타낸다.¹³⁾

13) 여기에서 동일하다는 의미는 응집성이 약한 어색한 텍스트라고 판단한 비율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율만을 가지고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응집성 인식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모국어인 태국어로도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가 자기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응집성 인식 및 응결 장치 활용에 유사한 점이 나타난 점에서 이러한 비율은 경향성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 1> 어색하다고 표시한 문항의 비율(14)



한국어 텍스트를 본 A집단에서는 응집성이 잘 갖추어진 텍스트로 제시한 5개 중에서 11번(15)을 제외하고 어색한 텍스트라고 판단하는 양상을 보였다. 11번 텍스트의 경우, 명시적인 주제문이 첫 번째 문장으로 제시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텍스트의 문장 간의 관계가 긴밀하며 어색하지 않는 텍스트로 판단하고 있었다.

자기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색하지 않는 글과 어색한 글을 판단할 때 A집단에서는 구체적인 접속사나 동일한 어휘 반복에 대해서 지적

-
- 14) 실험 종료 후, 번역 오류 정정 내용이 6번 텍스트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는 태국어로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실수로 누락된 것으로 실험 결과 해석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여 6번은 제외하고 자기 보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단, 사후 인터뷰에서는 정정한 텍스트를 다시 제공하여 응집성 판단을 다시 조사하였고, 그 결과 한국어 텍스트로 본 A집단은 어색하지 않다고 판단한 비율이 높은 반면 태국어 텍스트로 본 B집단은 어색하다고 판단한 비율이 높았다.
- 15) 11번 텍스트는 ‘건강’에 관한 주제로 ‘아침부터 무리한 운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문장에 주제문이 등장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아침에는 가벼운 운동을 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순서 배열이 어색한 텍스트에서 어휘적 응집 특히 되풀이를 통해서 문장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명시적인 응결 장치를 통해 텍스트 응집성을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B집단도 어휘 반복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텍스트 내용 파악의 용이성을 중심으로 중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면 어색하지 않는 글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2> 5번 텍스트

그리고 그 대가가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동안 우리는 개발을 위해 자연을 너무 많이 파괴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간이 파괴했던 자연을 되살려야 할 때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세와 희망을 심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자.

위 텍스트는 문장 순서 배열이 어색하여 텍스트의 응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런데 A집단에서는 첫 문장의 접속 부사 ‘그리고’가 사용된 것에 대한 어색함을 주로 지적하였는데, B집단에서는 순서 배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장 간의 연결 관계가 이상해 어색한 텍스트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접속사, 동일 어휘 반복 등 구체적인 응결 장치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양상을 보인 반면, 태국어 텍스트를 보았을 때에는 비록 응결 장치로 인해 문장 간의 순서 배열이 이상하다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으면 문장 배열에 대한 허용 폭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텍스트 내부의 의미적 연결 관계 이해의 범위가 목표어인 한국어로 보았을 때보다 모국어인 태국어로 보았을 때 더 넓게 나타났으며, 한국어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응집성을 이해할 때 응결 장치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모국어로 텍스트의 응집성을 인식할 때는 텍스트의 전체 내용 파악을

중심으로 하며, 텍스트 표층에서 응결 장치들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지만 텍스트 내부적으로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목표어인 한국어보다 모국어인 태국어로 본 텍스트 이해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분석된다.

A집단과 B집단의 판단이 상이한 결과에 주목하면, 응결 장치인 ‘생략’을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의 일부가 생략되어 응집성이 약화된 텍스트인 9번, 12번, 14번, 19번, 20번에 대해서는 A집단에서는 어색하다고 판단한 비율이 낮은 반면, B집단에서는 그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12번은 ‘9번, 14번, 18번, 20번’의 텍스트에서 생략된 내용과 달리 핵심 어휘가 생략되었는데,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2번 문항에 대한 판단 차이가 다른 문항과의 차이에 비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텍스트에서 핵심 어휘를 생략할 경우 텍스트 이해의 장애가 야기되며 반면 다른 항목의 생략을 알아차리는 민감성은 모국어에 비해 낮다고 예측된다.¹⁶⁾

4.2. 사후 인터뷰(회상) 분석 결과

문어 자료로 수집된 ‘자기 보고’ 연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텍스트 응집성 인식 양상에 관한 분석 자료를 더 확보하기 위해 사후 인터뷰로 ‘회상’을 통한 응집성 인식 양상을 고찰하였다.

사후 인터뷰에서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는 자기 보고 자료의 분석 결

16) Меепов(1997)의 연구에서도 영어와 태국어의 응결 장치 사용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영어는 생략이나 지시의 응결 장치 사용을 선호하는 반면 태국어는 어휘 반복과 같은 어휘 응집성을 선호한다는 것을 밝혔다(노미연, 2011: 187).

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응집성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응결 장치 중 ‘생략’을 가장 어려워한다는 점이다. <자료 3>은 일부 내용이 생략되어 어색한 글로 제시된 19번 텍스트인데, 자기 보고 결과에서는 B집단은 모두 어색하다고 판단한 반면 A집단은 어색하지 않다고 판단한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자기 보고 결과에서 태국어로 <자료 3>을 본 B집단은 ②번17)의 슬픈 감정을 느낄 때 ‘익숙한 무늬’를 선호하는 것처럼 기쁜 감정을 느낄 때에는 그에 대응하는 ‘OOO 무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후 인터뷰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A집단에서는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은 글로 판단하였다고 하였으며, 사후 인터뷰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생략된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는 한국어와 태국어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4>의 텍스트는 텍스트의 응집성이 잘 드러난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자기 보고 결과와 마찬가지로 A집단에서는 ①번 문장을 어색하다고 지적하였고 동물원 고릴라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자연 보호가 나온 ⑦번 문장이 나와서 어색하다고 하였다. 또한 ④번의 ‘그러나’의 쓰임이 어색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자료 3> 19번 텍스트

①최근 한 연구팀에서 사람의 감정 상태가 무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②사람이 슬픈 감정을 느끼면 자신에게 편하고 익숙한 무늬를 선호하고, 기쁜 감정을 느끼면 무늬에 더 끌린다고 한다. ③사람이 슬플 때는 조용하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안정을 원하고, 기쁠 때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의욕이 넘쳐서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17)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각 문장마다 번호를 표시하였다. 실제 실험지로 본 텍스트를 제시했을 때에는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다.

<자료 4> 1번 텍스트

①서울의 한 동물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②며칠 전 한 어린이가 노란 풍선을 들고 고릴라 근처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뛰어갔다. ③고릴라는 노란 풍선을 보면 흥분하여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④그러나 이미 고릴라는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었다. ⑤그런데 관람객들은 오히려 이것이 재미있다고 하면서 웃었다. 동물이 받을 스트레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⑥동물들에게도 생명과 생각이 있다. ⑦자연보호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인 동물을 사랑하는 방법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태국어로 위 텍스트를 접한 B집단에서는 4명의 참여자가 <자료 4>의 ‘동물 사랑’에 관한 주제를 동물원 일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텍스트의 의미 파악이 잘 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A집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 부분이다. 모국어인 태국어로 <자료 4>을 이해할 때에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의미를 파악하고 부수적인 내용¹⁸⁾이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응집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자료 4>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주어’가 생략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②번 문장의 ‘깜짝 놀라 뛰어갔다’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모두들 ‘어린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B집단에서는 ‘깜짝 놀라 뛰어갔다’의 주체가 어른도 되고 어린이도 되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때 이들 주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태국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¹⁹⁾

<자료 3>과 <자료 4>에서 생략된 성분은 다르며 그 결과가 야기하는

18) 자료 3에서는 ①~⑤의 일화가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장이다.

19) 태국어로 번역한 텍스트에서는 주어가 어른도 되고 어린이도 되는 등 주어 사용에 대한 제약이 한국어에 비해 덜한 편이라고 한다. 정화승(2007)에서는 태국어는 주어 생략이 가능한데 무주어 문장은 존재사 ‘有’(‘있다’라는 뜻)가 문장의 앞에 올 때 주어가 생략되는 것이고, 무동사 문장의 경우 특정한 명사가 서술어 역할을 할 때 동사가 생략되고 명사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지적하였다.

차이는 각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자료 4>에서는 한국어에서 자주 생략되는 문장의 주어가 빠졌고 <자료 3>에서는 텍스트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생략되었다.

생략된 내용은 텍스트 이해의 장애가 되며, 독자의 배경 지식 및 어휘 지식 등을 활용하더라도 그것을 유추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태국어로 보았을 때에는 그 어색함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 어색함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응집성을 나타내는 여러 단서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텍스트 표층에 존재하는 응결 장치를 통해 그 의미적 연결 관계를 파악하고 언어적 정보를 재인(recognition)²⁰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제2 언어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 사고 능력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인 태국어로 이러한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어에서는 이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자료 5> 20번 텍스트

①적당한 온천욕은 건강에 좋다. ②체온이 올라가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③그렇지만 갑자기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심장에 좋지 않다. ④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온천에 들어갈 때 차가운 물수건으로 얼굴 등을 덮으면 좋다.

20) 김성환(1999:122)에서는 ‘텍스트 독해에서 충분한 언어지식을 갖춘 모국어 독자는 텍스트의 언어적 정보의 재인(recognition)과 이해가 가능하여 능동적인 상호작용의 독해 과정을 나타내지만, 외국어 독자는 언어 지식의 부족으로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적 정보의 재인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자료 5>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B집단 사후 인터뷰 결과 태국어로 텍스트를 읽었을 때는 생략이 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Minegishi(2011)와 윤경원(2000)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태국어는 문맥에 의해 추측 가능하다면 어떤 요소든 생략될 수 있으며 문맥에 의해 복원될 수 있다면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이 가능한 언어다(권미경, 2011:30). 그런 까닭에 마지막 문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용이하여 텍스트가 어색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반면 사후 인터뷰 중에도 A집단은 한국어로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어색함을 알아차리기 어려워했고 생략된 부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처럼 모국어에서 문장 성분의 생략이 불가능할 경우 목표어에서도 생략된 부분을 인식하는 처리가 부담이 되며, 결국 생략된 텍스트의 응집성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모두 한국어 숙달도가 고급이어서 제시된 텍스트의 문법이나 어휘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텍스트 응집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다양한 문경 장치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무표지에 의한 대응’인 생략에 관해서는 유추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한국어 학습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생략된 내용이 핵심적인 것인지 부수적인 것인지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는데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태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한국어 텍스트의 응집성을 고찰하고, 모국어인 태국어 텍스트 응집성 인식 양상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 교육 기간 및 교육 환경에서 유사한 경험을 가

지고 있는 태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A집단과 B집단으로 임의 구분하여 A집단에게는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제시하고 B집단에게는 태국어로 된 텍스트를 제시하여 목표어인 한국어로 응집성을 인식하는 것과 모국어인 태국어로 인식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TOPIK에서 출제된 지시문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어색한 부분을 ‘자기 보고(self-reporting)’하도록 하였다. 텍스트가 어색하다면 ‘어떤 부분’이 ‘왜’ 어색한지에 대해 모국어인 태국어로 적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 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성적 연구 방법인 ‘회상(recall)’의 일환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응집성 인식에 관한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텍스트의 응집성을 인식할 수 있으나 텍스트 내부의 응집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응결 장치를 활용해서 텍스트의 어색함을 파악하는데, ‘생략된 정보 유추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모국어인 태국어 텍스트의 응집성 인식 양상과 비교하면 한국어 학습자가 텍스트의 응집성을 파악할 때 접속 부사, 어휘 같은 문법적 응결 장치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국어 텍스트보다 한국어 텍스트에서 명시적인 응결 장치를 통해서 텍스트 응집성을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한국어 텍스트에서 생략된 정보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응집성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왔다. 태국어로는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생략된 단서가 나타났는지 혹은 과잉 생략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민감도가 낮았다.

그리고 모국어인 태국어 텍스트의 응집성을 인식할 때에는 핵심 내용 파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문장 배열이 어색해도 의미 전달이 이루어지면 응집성의 허용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2언어인 한

국어로 텍스트를 접했을 때에는 문장 간의 순서 배열에 더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쉽게도 본 연구는 응집성 자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연구 방법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언어 수용적 관점에서 텍스트 인식에 작용하는 기저를 밝히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 언어를 단순히 현상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상을 이론화 시킬 수 있는 원리를 밝히고자 한 시도로 가치가 있겠다. 이러한 시도는 중간 언어 연구의 최근 동향을 분석한 이해영(2011)에서 언급한 ‘학습자 언어의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한계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언어권별 구분 없이 모든 한국어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심화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후에 보다 심화된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승혜 외(2006). 『한국어 평가론』. 서울: 태학사.
- 고영근(1999). 『텍스트 이론』.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 고영근(2000). 텍스트과학과 문예학, <텍스트언어학> 8호, 1쪽~24쪽.
- 권미경(2011).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생략 유형과 성분에 따른 이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희(2004). 담화 표지 ‘인자’의 정보 유도과 응집성 실현, <한국어 의미학> 15호, 181쪽~206쪽.
- 김은희(2007). 한국어 학습자의 문어텍스트에 나타난 결속성 기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09).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읽기 활동이 학습자 텍스트의 결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현화 외(2009). 『한국어이해교육론』. 서울: 형설출판사.

- 김성환(1999). 영어 설명문에서 결속장치의 유형과 독해지도: 결속장치의 재인을 중심으로, <영어교육연구> 11호, 121쪽~140쪽.
- 박진용(2003). 읽기 교수-학습을 위한 텍스트구조의 의미관계 고찰, <독서연구> 9호, 한국독서학회. 147쪽~178쪽.
- 신명선(2009). 텍스트 결속 기제로 작용하는 국어 명사의 특징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42호, 193쪽~219쪽.
- 이은희(2000). 『텍스트 언어학과 국어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종철(2003). TV 드라마 대본의 관용 표현의 응결성과 응집성, <텍스트언어학> 15호,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87쪽~311쪽.
- 이재원(2001a). 응집성, 응집성들, <텍스트언어학> 10호,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53쪽~188쪽.
- (2001b). 드 브그랑데/드레슬러(1981)의 텍스트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텍스트언어학> 11호,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79쪽~302쪽.
- (2008). 또 다시 텍스트성, <텍스트언어학> 24호,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59쪽~284쪽.
- 이혜영(2011a).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추측 양태 습득, 한국어학 53호, 335쪽~360쪽.
- (2011b). 학습자 언어 연구: 오류분석과 중간언어 연구, 이중언어학 제47호, 이중언어학회. 307쪽~330쪽.
- Beaugrande, R. de, Dressler, W.(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텍스트 언어학 입문, 김태호·이현호 역). 서울: 한신문화사.
- Brinker, K.(1992). *Linguistische Textanalyse*, Berlin.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이성만 역), 서울: 한국문화사.
- Halliday, M.A.K.(1973). *Explorations in the Functions of Language*, London: Edward Arnold.
- Halliday, M.A.K.(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2nd Ed.), London: Edward Arnold.
- Halliday, M.A.K. and R. Hasan.(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Group Ltd.
- Nunan, David.(2009). *Research Methods in Language Learning*, (외국어 학습 연구 방법론, 안미란·이정민 역), 서울: 한국문화사.

이보라미(Lee, Bo La Mi)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번호: 02-2669-9745

전자우편: blee0927@hanmail.net

수파편 분룽(Supaporn boonrung)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번호: 010-2781-9110
전자우편: nid.supaporn@gmail.com

투고일자: 2011. 12. 20

심사(수정)일자: 2012. 2. 17

게재결정: 2012. 2. 20